

자연, 감성, 그리고 생태건축 이야기

The Story of Nature, Sensibility and Ecological Architecture

필자 : 정아영, 백석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전공 교수
by Jung, A-young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국립초쿠비(筑波)대학교와 국립치바(千葉)대학교에서 '공간과 감성'에 관하여 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하세가와디자인연구소와 건우사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았다.

현재 일본감성공학회, 일본디자인학회 정회원으로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감성디자인연구원(<http://ried.kr>)에서 감성과 공간,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포럼과 학술발표 등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목 차

1.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감성
The New Perspective to the Nature = Sensibility
2. 감성과 공간디자인
Sensibility and Space Design
3. 감성의 생태건축에의 접근
The Approach to the Ecological Architecture of Sensibility

인류는 인류탄생으로부터 오랜 시간을 자연에서 보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에 적합한 형태와 방법으로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가속화된 도시화에 따른 지구환경문제는 건축분야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인간이 조화롭게 그리고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창출에 대한 방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태건축(Ecological Architecture)이 지구환경 보존문제에의 건축적인 측면으로의 대표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재는 앞으로 3회에 걸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태건축의 감성에의 접근과 그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한다.

먼저, 자연에 대한 시대적인 과제에 대하여 회고해보고, 옛 선조들의 전통가옥에 대한 생태적 지혜를 자연 속에 담긴 감성으로서 이해해 볼 것이다.

이올러, 생태건축의 오늘날의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생태건축의 시대적인 과제로서의 감성적 접근을 알아 볼 것이다. 또한 생태건축의 감성으로의 접근은, 감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의 소개와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옛 선조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담은 감성의 생태건축적인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재는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생태건축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기대한다.

1.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감성

1. The New Perspective to the Nature = Sensibility

인류와 자연

인류가 자연에서 살았던 시간은 오백만 여년으로, 인류 탄생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를 계산하여 보면 인류 역사의 99.996%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이 자연과 떨어져 살게 된 것은 불과 몇 백년에 불과하지 않으며 문명을 이루며 살아온 시간은 길어야 3만년 미만이라는 말이다. 이렇듯 인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에서 보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에게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살집을 짓고 살았고, 이때 자연소재를 이용하였다. 지역에서 얻어지는 자연소재를 가지고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 먹을거리와 입을 거리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인간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한정된 자원을 절약하며 지속적인 자연 순환체재를 유지하고, 자연에 도전하기 보다는 자연과 환경에 적합한 형태와 방법으로 자연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왔다.

자연에 대한 시대적 과제

오늘날 우리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유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와 번영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가속화된 도시화로 인류는 편의를 누리고 있다. 물질풍요를 추구해온 우리 사회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일하게 여기는 경향이 주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경향은 대량화, 대규모화를 추구하며 막대한 원재료와 에너지를 투입하며 발전해온 건축분야에서도 역시 발견 할 수 있다. 인간을 위한 공간조성, 즉 건축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주어진 자연에 인위적인 행위를 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실내 환경 공간에 있어서 인공적 환경조절을 위한 장치가 요구되어지기 시작한 이후, 최적의 실내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막대한 기계 설비를 투자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는 자연에의 인위적인 행위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인공적 환경조절로 인한 인위적 행위는 주로 주어진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파괴를 감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자연 파괴 행위는 자원고갈, 대기오염, 오존층 파괴 등을 야기 하고 때문에 지구의 균형은 깨져가고 있다.

지구환경문제에 따른 지구보존문제는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서, 다양한 분야를 통한 해결로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는 건축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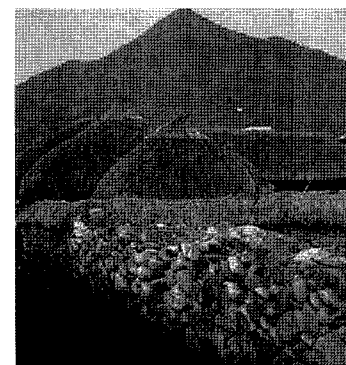
건축분야에서는 자연환경과 인간이 조화롭게 그리고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창출에 대한 방책을 최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 가운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자연친화적 건축 지향, 에너지 지향적 건축을 추구하는 생태건축(Ecological Architecture)은 지구환경 보존문제에의 건축적인 측면으로의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을 배려하는 건축(Environment Conscious Architecture), 저환경부하건축(Low Environmental Impact Architecture), 공생건축(Synergetic Architecture), 지속가능한 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생태건축 개념은 지금 이 시대를 위해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자 자연을 바라보는 절실한 시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에 녹아든 지혜

시대적인 새로운 시각으로서 이해되는 생태건축은 이미 오래전 우리 선조들의 공간에 대한 지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우리의 전통건축은 수세기동안 자연과 함께 해온 수세기 동안의 지혜를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발전하였다.

특히 전통가옥의 건물 배치, 공간 구성, 장식, 재료 등은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지역의 환경, 기후, 계절의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게 계획하였으며, 이는 쾌적한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먼저 우리의 전통마을은 산을 뒤로 하고 하천을 바라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가파르지 않은 남향 산기슭에 발달했다. 이러한 전통마을의 배치는 바람을 순화시켜주어 북서계절풍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땀감 등 연료채취가 용이하여 겨

울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하며, 외부 침입에 대한 방어에 유리하였다. 또한 비옥한 논밭과 취수가 편리한 풍부한 샘물은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에 유용하였다.

각 지방별로 개성을 갖춘 가옥의 공간구성 또한 그 지역이 가지는 기후환경과 주변의 환경요소, 생활양식 등을 고려하여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 지혜의 흔적으로, 주간 축열 기능과 온습도 조절기능이 뛰어나, 실내공간의 온도를 주간에는 외기보다 낮고 야간에는 높은 온도분포를 가지게 하였으며,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무난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새의 집을 뜻하는 소거(巢居)에서 유래한 대청마루에 나와 앉으면 펼쳐진 산천인 천연 바람막이가 되어 준다. 또한 여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창문, 남중고도를 고려하여 여름에는 마루의 바깥선 정도로 햇볕이 들어오고 추운 겨울에는 해가 방안까지 닿을 수 있게 계획한 처마도 있다. 또한 추운 겨울에는 땅을 파내어 그 안에서 불을 피우고 지내던 수혈주거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온돌을 사용한 구들과, 집의 기단을 높임으로서 구들과 함께 지반의 습기에 대한 고려를 통해 겨울의 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발전해왔다.

그 뿐인가, 전통가옥을 지어내는데 사용한 대부분의 재료는 재생 가능한 자연적인 것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상태로 사용되었으며, 다시 재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전통가옥은 대지의 일부인 듯 보이기도 하여 땅에서 태어나 다시 땅으로 되돌아갈 것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이렇듯, 전통적 생태건축은 기존의 자연을 가능한 한 유지하고 그에 적응하는 공간구축을 이루어냄으로써 공간을 위한 유지와 관리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자연조건에 대하여 적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소모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자원재생을 통하여 공간 자체가 자원순환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며, 그것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다.

감성을 읽어 내는 것

새로운 의미로의 현대적인 생태건축은 전통적 생태건축의 자연조건에의 적응, 자원의 순환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 자연과의 조화로운 접목을 본받아 새로운 시각으로 전개되어야한다. 여기서의 새로운 시각이란, 비단 전통적 생태건축의 기술이라든가 형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이 주는 혜택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기위한 옛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는 일 일 것이다. 선조들의 지혜는 고민과 생각 그 자체이며, 그를 통해 얻어진 깨달음이며 또한 그들이

성취해온 자연에 대한 실천의 결과와 그 속에 담겨진 우리들의 감성이다. 이렇듯 전통적 생태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자, 지혜이며, 감성인 것이다. 전통적 생태건축 속에 숨어있는 감성을 읽어내는 것, 즉 현대적 생태건축이 전통적 생태건축의 자연과의 조화로운 접목을 본받아 새로운 시각으로 전개해야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

우리의 삶이 자연에서 만들어졌듯이 우리의 감성 역시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을 선호하며 만들어져 왔다.

어린 시절, 시골에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웅덩이에서 놀다가 돌아오거나, 비가 내리면 집 뒷마루에 앉아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것을 계속 바라보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방울을 손바닥으로, 손가락으로 만져본 추억. 또 집 앞 갈나무 앞에 떨어진 빗방울이 넘블링 하듯 뿜겨져 내려 흙바닥에 떨어지는 정감 넘치는 기억 등 그리운 기억을 하나쯤은 추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인간은 인공적인 환경보다 자연환경을 선호하고, 차가운 재료의 직선적 느낌보다 부드럽고 따스한 재료의 곡선미를 더 좋아한다. 그러나 흙 대신 콘크리트로 마무리된 지표에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감성을 자아내지는 못하는 경직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